

자료 27. 교명유지를 위한 총동  
문회 신문광고

## 10만동문과 재학생의 염원을 모아 경원대학교를 사랑합니다.

경원대학교는 1978년에 설립되어 10만 동문을 배출하고 1만6천명이 재학하는 젊고 비전 있는 대학입니다. 경원대는 경원전문대와 통합 한지 4년 만에 또 다시 인천 소재의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학교법인 경원학원은 규모가 더 작고 역사도 짧은 가천의과학대의 학교법인 가천학원에 흡수 합병되었고, 통합된 대학교의 교명도 경원대학교가 아닌 가천대학교로 변경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될 대학교의 교명인 '가천'이란 명칭은 경원대학교 총장이자 가천의과학대학교 설립자인 이길여 여사의 호(號)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대학교의 교명을 특정인의 이름이나 호로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특정인의 사적 소유물화 시키는 것으로, 3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원대학교의 학생, 교수, 동문들을 모두 무시하는 전근대적인 처사입니다. 이는 사회통념에도 반할 뿐 아니라 대학통합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통합된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역행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경원대학교라는 교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 30여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동문들과 재학생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통합된 대학교의 교명변경에 '가천'이라는 명칭사용을 반대하며 대학통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1. 경원대학교 교명을 유지한다.
2. 학교재단의 일부 인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대학통합 진행을 반대한다.
3. 학교재단은 대학통합을 반대하는 재학생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라.
4. 대학통합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학생, 교수, 직원, 동문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라.
5. 주무 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재구성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통합승인을 신중히 해야 한다.



경원대학교총동문회

Tel.031-750-5619 Fax.031-750-5618 www.kw4u.co.kr

## 자료 28. 각종 공문과 답변서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더불어 함께, 스스로 힘으로, 경원사랑의 마음”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경원대학교 아뜰관 620호 총동문회실  
 전화 : 031-759-4235 / 홈페이지 : [www.kw4u.co.kr](http://www.kw4u.co.kr) / E-mail : [kyungwon4u@hanmail.net](mailto:kyungwon4u@hanmail.net) / 사무총장

문서번호 : 총동문회 11-43

시행일자 : 2011. 7. 22

경 유 :

수 신 : 대통령

참 조 : 대통령비서실장

접	일자	년 월 일 :	결 재 · 공 람		
	시간				
수	번호				
처리부서					
담당자					

응 신 기 일 : 2011 년 월 일

제 목 : 경원대 통합에 관한 심의서류 정보공개청구의 건

1.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립대학의 대규모 통합의 첫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원대통합에 대하여, 교명을 잃은 동문의 통탄한 심정을 대변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충의 심각함이 이루 형언 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심의된 내용의 공개를 청구 합니다.
4.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가, 통합을 결의한 법인이사회 회의록
  - 나, 통합 및 교명변경에 동의한 대학 평의원회 회의록
  - 다, 대학 통합 승인 1차 요청서 전문
  - 라, 대학 통합 승인 수정 요청서 전문
  - 마, 구성원 동의 서명 전문
  - 바, 심의 회의록 전문
  - 사, 경원대학으로 통보된 승인확인 서류
- 끝.

## 제9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 규 호



##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규호**  
(경유)

제목 **대통령실 이첩민원(경원대 통합 관련)에 대한 회신**

---

1. 관련 : 국민신문고 1BA-1108-030863(2011.8.10)

2. 민원내용

- 경원대 통합에 관한 심의서류 정보공개청구의 건
  - 통합을 결의한 법인이사회 회의록
  - 통합 및 교명변경에 동의한 대학 평의원회 회의록
  - 대학 통합 승인 1차 요청서 전문
  - 대학 통합 승인 수정 요청서 전문
  - 구성원 동의 서명 전문
  - 심의 회의록 전문
  - 경원대학으로 통보된 승인 확인 서류

3. 민원회신

- 귀하께서 요구하신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의 통폐합 승인( '11.7.11) 관련 정보공개 청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더불어 함께, 스스로 힘으로, 경원사랑의 마음“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경원대학교 아름관 620호 총동문회실  
 전화 : 031-759-4235 / 홈페이지 : [www.kw4u.co.kr](http://www.kw4u.co.kr) / E-mail : [kyungwon4u@hanmail.net](mailto:kyungwon4u@hanmail.net) / 사무총장

문서번호 : 총동문회 11-42

시행일자 : 2011. 7. 8

경 유 :

수 신 : 감사원장

참 조 : 교육재정 감사 자문  
 위원회

접	일자	년 월 일	결		
	시간	:		재	
수	번호		·		
처리부서			공		
담당자			람		

응 신 기 일 : 2011 년 월 일

제 목 : 경원대 감사에 관한 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등록금 관련하여 대학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경원대는 07년도에 경원전문대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문대의 자금이 경원대회계와 합쳐졌습니다. 그 자금의 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4. 또한 통합후의 전문대 학생이 경원대로 편입하면서 약 1800명 정도의 잉여 등록금을 더 걷게 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입니다.
5. 경원대의 적립금 규모는 2010년도 기준 900억이 넘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은 전국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6. 첨부한 기사 내용처럼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도 불법 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미루어 이번 대학 감사에 경원대도 포함하여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경원대는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대학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청원을 합니다. 끝

“첨부 1”

## 제9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 규 호

# 첨부 1

## 기사 내용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097>      발췌

### "사립대들, 등록금 수천억 빼내 돈잔치"

#### 22개대 지난해 2,695억 불법전용, 교과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2011-06-10 09:53:52

- [기사프린트](#)
- [기사모으기](#)
- [의견보내기](#)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 22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2천695억원을 불법 전용했으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금 인하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사립대학 회계 및 종합감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2개 대학에서 등록금 2천695억여원이 부당하게 지출됐다.

대학들은 학교 업무와 상관 없는 법인이나 부속병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등록금에서 관행처럼 지출하고 있었다.

명지재단의 경우 명지병원의 인건비 147억여원을 관동대 교비에서 지출했다.

길의료재단의 경우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경원대의 전임교원 3~5명을 같은 재단 산하의 경원인 천한방병원에 파견, 수업은 주당 평균 1.8시간 의학사 등 기초의학 강의만 하면서도 전임의 인건비인 6억9천904만원을 교비로 부담했다.

길의료재단은 또 1992~2009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을 임대해 부속병원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보증금 15억5천500만원을 교비에서 냈다.

부당 지출에는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들도 한몫 했다.

남서울대는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이사장 개인비서의 월급과 차량 관리비, 신호위반 등으로 낸 과태료 등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냈다. 또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총장에게 최근 3년간 매달 6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직자 63명에게 업무추진비 10억8천375만원을 인건비에 포함해 지급했다. 계명문화대는 2008년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법인 이사장의 명예박사학위 축하연 비용 1천899만원을 교비로 내기도 했다.

규정도 없는 수당으로 돈 잔치를 한 대학도 있었다. 대전대는 2007~2010년 부속병원 의료진 30여명에게 규정에 없는 진료수당을 책정해 30억6천415만원을 지급했다. 경북대는 2007, 2008년 교직원들에게 특별수당 명목으로 1억3천810만원을 나눠줬다.

학교 발전에 쓰라고 단체나 개인이 기부한 돈을 법인이 가로챘 사례도 많았다.

성신여대는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모금한 58억641만원 중 44억1천423만원을 법인이 가져갔다. 관동대는 스마트카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나은행이 기부한 90억원 전액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정작 시스템 구축 비용 31억2천143만원은 교비에서 지출했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장학금을 위한 적립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돈을 날린 대학도 있었다.

대구가톨릭대는 적립금 791억8천556만원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2005~2007년 주식에 투자해 98억8천975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대학은 2009년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200억원을 주식에 투자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감독기관인 교과부의 미온적 대응.

대학 보직자나 회계 감독자 수백 명이 의도적으로 등록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지만 교과부는 7명만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뿐 대부분 경고나 주의 조치만 주고 일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의 살림을 투명하게 꾸려가야 할 사람들이 등록금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업무상 배임을 넘어 포괄적인 횡령 혐의까지 둘 수 있다. 교과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 관계자들은 사립대학들과 교과부의 끈끈한 관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립대학 석·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는 교과부 직원 23명 가운데 자비 부담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했고 전액(11명)이나 일부(10명) 장학금을 받는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실의 김종무 보좌관은 "대학들이 장학금까지 주면서 공무원들을 학교 동문으로 만들려는 것은 감사를 피하거나 감사에 적발됐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해달라는 의도"라며 "과거 것까지 들춰내면 교과부 고위직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혜영 기자





교과부 민원  
질의

1,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가 통합하여 가천대학교로 승인받았는데, 이후 행정 절차는 경원대 학교 폐교, 가천대 신설이 되는것인지 여부, 즉 경원대의 정통성이 정지 되는것인지 여부.

2, 현 재학생 2, 3, 4학년의 경우 졸업시 입학 기준(경원대)으로 졸업장을 받는데, 학생이 원하면 졸업시 가천대 학교 졸업장을 받는지 여부, 아니면 무조건 가천대학교 졸업장을 받는지 여부.

3, 2012년도 가천 의과학대학에 있던 의전이 승인 취소가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의과대로의 환원인지, 의대 의전 취소인지, 아니면 낭설인지에대한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등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의 통합이 어느 한 대학의 폐교나 신설이라기 보다는 통폐합 승인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가천대학교' 로 새로이 출발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2. 대학 통폐합의 경우 통폐합 기본계획에서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통폐합 당시 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위취득의 문제도 해당됩니다.

통상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기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통합전의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대학간 기본계획 수립 협의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학위 수여의 주체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2012년 가천의과대학에 관한 사항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민원은 관련 법규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한이 이번 달 말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통합시 동문 10인의 동의서면 필요 여부 - 동문 10인의 동의서면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통폐합 승인 심의시 통폐합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참고하고 있는데 이 때 학교법인은 구성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통합 대학 교명으로 한 개인의 호나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여부 - 사립대학의 교명은 사회 통념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인의 호나 이름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개인의 호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3. 통합이 허가 사항인지 인가 사항인지 여부 - 통합은 승인사항입니다.
4. 통합 신청 접수 후 심의 기간 - 통상 심의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심사위원의 자격 -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됩니다.
6. 심사위원의 심의사항 -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통폐합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7. 대학평의회에서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대학평의회는 심의기구입니다(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기구). 따라서, 대학평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 2012년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2012년도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한다면 통합 승인 여부는 6월~7월에 결정되어야 하며 서류 심의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 접수 날짜 조정 가능성 - 8번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합 후 교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교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우선 우리부는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교명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측은 빠른 시일 내에 동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교명에 대한 학생, 교직원 등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학교측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귀하께서 제출한 내용 역시 포함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의시 구성원의 동의 여부를 참고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며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 법인 임직원 등도 중요한 구성원의 일부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9. 교명 사수 단식투쟁과  
농성 노숙투쟁 자료

1일차

## 경원대학교 교명 사수를 위한 호소문

경원대학교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성남시민에게 호소드립니다.

10만 동문과 1만5천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는 경원대학교가 이길여 총장이 이끄는 학교 장사꾼들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길여 총장 측은 이미 교과부의 통합 승인으로 인하여 경원대는 가천대로 바뀌어 졌으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만6천 재학생과 10만 동문 그리고 성남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길여 총장의 개인 공덕비를 세우기 위해 변경 한 교명은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경원대학교라는 교명이 이길여총장과 그 측근들이 세운 건물과 매해 학교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별 볼일 없을 지라도 우리 동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며 재산입니다. 일방적인 교명 변경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와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인권적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 합니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입학 한 경원대 재학생은 앞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가천대로 졸업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꿈을 키워 나갈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강요된 체념과 좌절부터 배워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권력과 힘이 최고의 선이며 힘없는 다수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대학은 우리가 발전시킬 테니 너흰 등록금이나 열심히 내고 학교일은 우리가 하마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우리 모두가 동의 해야만 합니까! 이길여 총장과 그 측근의 일방적인 교명 변경은 스스로가 교육사업자요 스승의 길을 포기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자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개인의 권리와 합리적 절차에 대해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스스로를 등록금 장사꾼으로 만 천하에 공공연히 선언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을 선택 할 때 자신이 내린 결정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지금 달라져 버렸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모든 폭력이 지향하는 바는 상대방의 침묵과 체념이며 지배입니다. 경원대학교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 자체가 물리력이 행사 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충분히 폭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항 하지 않는 자는 평생 폭력의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일어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경원대학교의 교명은 가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의도 없었으며 합리적인 논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반대 했지만 학생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 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항 받지 못한 권력은 질주 하게 되어 있고 결국 경원대학교에서 자행했던 돈과 권력의 횡포는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행해 질 것입니다.

경원대학교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원대

학교로 입학 한 1만 6천명의 재학생이 있고 10만의 동문 그리고 성남시민의 정서적 지지가 있습니다. 경원대 총동문회는 가천대로의 교명 변경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으며 경원대학교 교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 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경원대 교명을 지키는 그 날까지, 경원대가 온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 그날 까지 재학생의 참여와 성남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지라도 정의가 함께 하는 한 반드시 승리 할 수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제9대 총동문회

## 총동문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알립니다.

조규호 총동문회장이 비전센터내 로비에서 10월 4일 10시 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본 단식농성은 일방적 교명 변경에 대한 항의와 경원대학 교명을 지켜내기 위한 동문회장의 자발적 결의에 의한 농성입니다.

많은 동문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 합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 입니다.

힘겨울 때 필요한건 혼자가 아니라는 관심과 격려 입니다.

학교는 이미 가천대로 교명이 바뀌었음을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 할 수는 없습니다.

단식 농성장을 지켜 줄 동문들이 필요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학교로 방문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매일 중계 되는 내용을 개인 SNS를 활용 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농성장 비상연락 010-7488- 010-2277-

경원대학교가 가천대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10월 4일 11시 단식농성장 현재 상황

단식농성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결의와는 달리 학교는 너무도 조용 합니다.

많은 동문의 참여가 절실 합니다.

농성장 방문이 어려운 동문은 개인 SNS를 활용해서 다음 내용을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경원대학교 교명 변경 반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명 변경 반대

총동문회 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1일차



## 10월 4일 4시 단식농성 현장 상황

호소문을 대자보 형태로 붙이고

좌우에 재학생들에 대한 호소 게시판도 붙였습니다.

학생총회가 10월 10일경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유인물을 돌리면서 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힘이 됩니다. 오전에 동문 두분이 왔다 가셨고

일교차 때문인지 현재시간 4시 44분에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전 12시경에 학교 담당자들이 와서 단식농성 만류를 요청 해왔습니다.

학교측은

"이미 끝난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가천대에 들어와 공부 할 신입생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다른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자는게 학교측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측은

"일방적인 교명 변경에 대한 항의와 학생 동문이 참여 하는 통합교명의 재논의를 요구 했습니다."



학교 측에 의해 농성장이 폐쇄된다면  
이미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정문 앞 도로로 이동하여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호소문을 나누어 주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는  
재학생 후배들이 있어 감사 할 따름입니다.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남겨 놓고 가겠습니다.

늦었지만  
혹시라도 여기 작은 불씨와  
후배들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딪들이 부딪쳐 지기라도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명은  
교과부 심의 사항이 아니라  
통합이 된 시점에서 학교 재량에 달려진 문제입니다.

학생총회 결과 투표자 수 2574명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에 찬성 331명 반대 2,488명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공허한 메아리 일 뿐입니다.

---

## 단식2일차

### 10월 5일

어제 저녁에는  
후배들이 동문회장님 수고하신다고  
커피를 두개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식중이어서 아무도 손 내밀어 먹을 순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져 옵니다. 역시 우린 경원대학교 동문입니다. 관심과 격려로 인해 견딜만한  
밤이었습니다.

1일차 부터 재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 후배들은 경원대학교 명칭 변경 대책위를 꾸려 나름의 목소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통합이 발전을 지향 하는것인데 그 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재학생들이 불편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의 의사를 들으려 하지 않는 학교측에 대해 항의 차원과 10월 12일 자발적 학생총회를 위한 홍보를 위해 총동문회장 단식 농성에 동고동락 노숙 농성으로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에서는 모두 발언에서 다수의 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과 교명 변경에 대한 생각들을 알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2일차로 접어들면서 총동문회장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총동문회장은 후배들을 볼 때 마다 미안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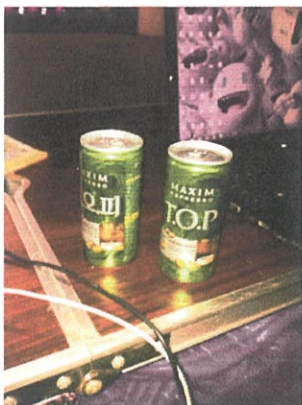
선배가 되어서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해서 그렇지만 이번 싸움은 개인의 명망이나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장에서 비민주적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학교측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걸 후배들에게 최소한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동문 모두도 동일한 마음 일겁니다.

경원대학교 교명을 사수하기 위해 그리고 귀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학교 당국과의 힘든 싸움에서 앞서 분투해가는 동문회장에게 응원의 문자를 남겨주세요.

011-325-

(내일 부터 단식 3일째 입니다.음성통화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성장 소식 - 내일 아침 새벽 6시까지 철수하라

학교측에서는 내일 아침 새벽 6시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철수 하겠다는 걸 최종 입장으로 통보 해왔습니다. 사실 1일차 부터 직원들이 대기 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예상 밖으로 나타나자 학생들이 많이 왕래 하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 내일 새벽 6시까지 자진 철수 하지 않으면 강제 철수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재학생 1명 총동문회장 1명 그리고 동문 2명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나 많은 직원들을 ..... 새벽의 찬바람이 아니라 마음에서 바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비전타워는 너무도 높게 서있고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저 거대한 타워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시련은 내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나 봅니다.

10월 5일 내일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11시 기자회견 후 학교측의 강제 철수가 있을지라도 비전타워 앞에서 총동문회장의 단식농성은 계속 될 겁니다. 아직 이곳은 우리의 모교입니다. 모교에서 자신의 반대의견을 내세울 자유조차 인정 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연 이곳은 교육의 장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르치는 곳입니까

이우중 부총장님이 농성장애 찾아 왔습니다. 학교측도 절차와 명분을 다 지키고 싶어하나 봅니다. 학교의 책임자로서 총동문회장을 설득 권유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총동문회장이 흥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前 경원대학교 가천대 명칭으로 수시 모집을 하고 있는 학교측에서는 철저히 이용하고 버린 이름이 그래도 쓸모가 있는지 친절하게도 수험생들을 위해 위와 같은 배너를 정문 앞에 내다 걸어 놓았습니다.

총동문회장은 前 경원대학교 배너를 들고 와 이우중 부총장에게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경원대학교에서 몇년간이나 재직 하셨으며 왜 동문들이 반대하며

말 못하는 재학생들이 정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실만도 한데 왜 우리를 대변 하질 못하나"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학생들을 모아 놓고 만약 학생들이 가천대로 명칭이 변경 되는거에 찬성한다면 두말 없이 학교를 떠나겠다"

충동문회장의 성토에 이우중 부총장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더욱 분노케 만듭니다.

"우리들은 통폐합을 위해서 1년간 치밀하게 준비 해왔다. 너희들이 준비가 부족한거 아니었나"

" 비전타워 그건 경원대와 경원전문대가 통합 할 때 생긴 돈으로 지은거다"

1년전 학교측은 통합은 좋은 것이고

그에 따른 통합교명은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될 것이다.라고 공표 했었다  
믿은 우리가 어리석은건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가

결국 웅장한 비전 타워는 통폐합 당한 경원전문대 학우들의 눈물로 지은 것이며  
교육사업가이신 총장님이 지어준 것은 아니었구나 잘 알았습니다. 교수님 기운이 없을 때  
분노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은 기자회견에 천막농성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문들의 많은 격려와 방문 재학생 후배들의 응원에 힘이 나는 하루입니다.



---

### 3일차

#### 가천대NO 경원대 교명 사수 기자회견

9월 6일 오전 11시 비전타워 단식 농성장에서

교명 수호 단식농성과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기자회견은

교명을 지키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자리 였습니다.

참여 언론사는 아름방송, ABN, 성남피플이 참여 했으며  
연합뉴스에서는 진행 사항에 대한 보도협조전을 요청 해왔습니다.  
추후 언론관련 절차는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 및 현황을 정리해서  
각 언론단체에 보도협조전을  
발송하고 자체 일간지 광고를 집행 할 예정 입니다.



## 경원대학교 교명 변경 반대 기자회견 전문

1% 찬성 96%의 반대 - 통합교명은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이 길여 총장 측은 이미 교과부의 통합 승인으로 인하여 경원대는 가천대로 바뀌어 졌으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만6천 재학생과 10만 동문 그리고 성남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길여 총장의 개인 공덕비를 세우기 위해 변경 한 교명은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측이 통합 및 교명 개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자신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념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교인 경원대학교로부터 부당한 것에 대해 항의 하고 반대 할 줄 아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소양을 배웠습니다. 재학생 총회에서는 가천대학교로 교명 변경에 대해 1%의 찬성과 96%의 반대가 있었고 총동문회는 공식입장으로서 교명 변경에 대한 결사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견해는 일방 무시로 일관되어왔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은 1년 전 통합은 학교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것이며 통합교명은 모두가 인정 할 만한 수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 하겠다고 공표 했습니다. 스스로 말한 절차적 합리성도 지키지 않고 교과부 심의라는 행정적 요식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천대를 받아 들이라고 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시한 통합교명 결정은 민주적 합리적 절차를 우선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저는 졸업생이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승복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교측의 재학생 무시 행정에 대한 항의와 통합교명에 대해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논의를 요구하며 3일 전 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다시 요청 합니다. 학교가 장사의 도구가 아닌 교육의 장이라면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반대의견을 무시 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의견을 수렴 해 모두가 원하는 발전을 위한 통합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경원대학교 교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가 함께하는 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 9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조규호

기쁜을 세우고 원력을 지킵니다



#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수신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 조 사립대학제도과장

제 목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 승인 신청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를 통합하고자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승인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 승인신청서 10부. 끝.

붙임  
—  
후  
증

## 학교법인가천경원학원이사장



수신처

주임 이경환

과장 원대회

상임이사 이상우

이사장 김신복

협조자

시행 학법가천경원1040-621 (2011.4.29) 접수

우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산65

/ http://www.kyungwon.ac.kr / 통 화 : 권 대 회

전화 031.750.5092 / 전 송 031.759.7870 /

e-mail: wdh@kyungwon.ac.kr

공 개 배 광 개 문 서

위 사 본 함  
변호사 김 종 인

